

## [Weekend Interview]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한국인 최초 우승자 전주연 모모스커피 바리스타

만들 때부터 마실 때까지 행복  
사람향 나는 커피한잔 어떠세요

이덕주 기자    입력 : 2019.05.10 17:07:07    수정 : 2019.05.10 23:27:18

10년 전 그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이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그는 '과연 내 길은 무엇일까' 방황하던 평범한 청춘이었다. 우연히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바리스타 일을 하게 된 지 10년. 그는 올해 4월 보스턴에서 열린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의 우승자가 됐다. 55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바리스타들과 경쟁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극찬을 들으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전주연 모모스커피 바리스타(32) 이야기다. 한국인으로 최초, 여성으로는 사상 두 번째, 서울도 아닌 부산 커피회사 소속.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매력적인 요소로 가득하다. 그의 우승으로 한국은 전 세계 스페셜티 커피 업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 신록이 짙은 어느 날. 커피향 가득한 서울 영등포 커피리브레에서 전주연 2019 월드바리스타챔피언을 만났다.



△'커피 월드컵'으로 불리는 2019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전주연 바리스타가 서울 영등포 커피리브레에서 커피를 추출하며 웃고 있다. [이승환 기자]

—원래 바리스타가 되는 게 꿈이었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그해 유아교육과 커트라인이 워낙 높아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 들어가서 아동복지 쪽도 공부하고 보육교사 자격증도 났다. 병원에서 일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바리스타가 된 건가.

▷4학년 때 사회복지관 실습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일해봤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 그것을 일로 하는 것은 다르더라. 과연 내가 유치원교사나 사회복지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습 나가기 전에 부산 모모스커피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는데 모모스커피 대표님에게 우연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다음주부터 출근하라고 했고 그 후로 10년간 바리스타로 일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지 않았나.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하셨다. 그때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특히 어른들에게는 더 익숙지 않았다. 교수님들도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말렸다.

—경상도 분들은 더 보수적이지 않나.

▷그런 것 같다. 서울로 유학을 간다고 할 때도 반대하셔서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다.

—반대하셨던 부모님이라 우승을 더 기뻐하셨을 것 같다.

▷그렇다고 들었다. 부모님이 아직도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하셨다(웃음). 하지만 아버지가 밖에서 딸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신다고 들었다.

—언제부터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에 도전했나.

▷2009년 바리스타로 일하기 시작한 그때부터인 것 같다. 모모스커피 대표님이 미국에서 열린 커피 박람회를 다녀오고 미국에 WBC라는 대회가 열린다고 있다며 영상을 보여주셨다. 큰 무대에 한 명의 바리스타가 서고, 모두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바리스타 한 명이 존중받고, 관심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바리스타는 파트타이머라고 생각하던 시절인데 깜짝 놀랐다. 내가 바리스타라면 저기 한번 서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국내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국내 선발대회가 있었나.

▷그렇다. WBC에 나가려면 국내 대회에서 1등을 해 국가대표가 되어야 한다. 7번 도전했고 2018년에 처음 국가대표가 됐다.

—7번 도전 끝에 겨우 된 것인가.

▷그렇다. 2018년 암스테르담에서 WBC대회가 열렸다. 바리스타로 일한 지 9년여 만에 서게 된 무대였는데 엄청나게 긴장했다. 다른 사람이 거는 기대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책임감이 컸다. 작년에 준비할 때는 재미있게 준비하지 못했고, 준비하는 기간에 울기도 많이 했다.

—WBC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지나.

## 유치원교사 꿈꾸던 부산소녀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땀지만  
실습하며 “적성아니다” 느껴  
꿈 찾아 방황하다 카페 알바  
우연히 시작한 바리스타로 10년

▷ 15분 동안 심사위원들에게 12잔의 음료를 제공  
해야 한다. 에스프레소 4잔, 밀크 음료 4잔, 시그니  
처 메뉴 4잔이다. 심사위원들에게 내가 왜 이 원두  
를 선택했고, 왜 이런 로스팅을 했고, 왜 이렇게 추  
출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발표가 한 주제를 중  
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바리스타가 가지고 있는  
기술뿐 아니라 철학까지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다.

## 7전8기 바리스타 국가대표

바리스타 존중하는 모습 좋아  
10년전 美대회 나가기로 결심  
어학연수까지 하며 대회준비  
15분간 12잔 음료 심사받아  
‘센세이셔널’ 극찬 받고 우승

—대회 영상을 보니 영어로 심사위원들에게 15분  
동안 설명을 했다.

▷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되고 나서 런던에 두 달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두려움을 없애고 싶었  
다. 사실 프레젠테이션은 15분 분량을 외우면 되  
니까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국가대표로 나가는  
만큼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한국에도  
이런 선수가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다.

—외고를 나왔는데 영어를 잘 못한 건가.

▷ 외고에서 영어를 전공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외우  
기만 했지 회화는 잘 못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다양한 탄수화물을 어려운 영어로 표현했다.

▷ 사실 전문용어는 외우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다만 전달력이 중요하다. 타고난 역량을  
바꿀 수 없으니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노력했다.

—유치원교사처럼 차분하고 따뜻하게 설명한다는 느낌도 받았다.

▷ 원래 대회라는 것이 평가를 받는 사람과 평가자가 있다보니 15분의 무대가 긴장의 연속이다.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즐길 수 없다. 작년에 대회를 경험하고 나서 욕심을 버려야겠다고 생각  
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를 고민했다. 그  
래서 조금 더 심사위원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다. 심사위원들을 손님처럼 가깝게 앉히고 마치  
바리스타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대하면 같이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여성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우승자다.

▷ 사실 여성 최초 챔피언을 해보고 싶었는데 지난해 우승자가 나와서 속상하기도 했다. 한국사  
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 맞는  
다.

—세계대회에 나가는 바리스타는 남성이 많은가.

▷대회에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 바리스타다. 우리나라도 항상 결승전에 가면 최종 6명 중 내가 유일한 여성이었다. 많은 분이 여성으로서 힘든 것이 없었냐고 하는데 여성과 남성이 준비하는 데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커피의 단맛을 강조했는데.

▷커피의 단맛을 내가 처음 강조한 것은 아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를 화학적으로 풀어냈을 뿐이다.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설명을 쉽게 해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왜 화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나.

▷개인적으로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커피를 마시다보니 화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커피 고유의 단맛이 있다. 커피열매 속의 탄수화물의 작용이다.

—스스로 공부를 했나.

▷혼자 논문을 읽고는 이해되지 않아 무작정 부경대 식품공학과에 연락을 했고 전병수 교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전주연 바리스타에게 커피란?

▷커피란 '에너지'다. 커피 한잔으로 고객에게 에너지를 드리고, 나 역시 커피 한잔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람 중심의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스페셜티 커피의 가치가 높아져야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해진다. 더 나아가서는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 커피를 만드는 사람,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야만 우리는 좋은 커피를 오랫동안 만날 수 있다.

—스페셜티 커피란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향미, 맛, 후미, 보디 등 10가지 항목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획득한 고급 커피를 말한다. 스페셜티 커피란 단순히 고급 커피가 아니라 농민과 커피회사,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자는 의미가 담긴 커피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곳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는 '공정무역'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다. 무조건 비싼 가격에 사주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이 좋은 커피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내 커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스페셜티 커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1잔에 1000원, 1500원 하는 저가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 우리나라는 저가와 고가 커피가 공존하고 있으며, 두 시장 모두 커지고 있다. 저가 커피 시장이 스페셜티 커피를 키우는 데 발판이 된다고 생각한다.

—WBC에서 한국 위상은.

▷한국은 재작년 WBC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이번에 우승자가 나오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폴바셋’처럼 WBC 우승자의 이름을 딴 커피숍과 브랜드도 있다.

▷WBC 챔피언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명예와 기회가 생긴다. 그분들은 그런 쪽으로 기회를 살린 것이다. 나는 산업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한국을 세계에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다. 한국 시장만을 보고 바리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세계 커피 시장의 한국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한국에 내 이름을 단 매장을 낸다거나 수익사업을 한다는 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한국의 뛰어난 농업기술을 커피농가에 접목시켜 더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개발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테라로사, 커피리브레 같은 한국 스페셜티 커피 기업들도 역사가 길다.

▷한국에 스타벅스 리저브도 있고, 블루보틀도 들어왔지만 나는 국내 개인 스페셜티 커피 기업들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개인 숍 모모스커피 소속이다.

—우승 과정에서 한국 스페셜티 커피 회사들의 지원이 많았다고 들었다.

▷테라로사, 커피리브레를 비롯해 커피 산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다. 부산에서 커피숍을 하시는 어떤 사장님은 사비를 털어 WBC 결승전에 오셔서 응원을 해주셨다.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체구가 많이 작은 것 같다.

▷실제로 만난 분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 체구가 작다보니 어렸을 때는 ‘커피 업계의 킥벨’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부산 출신인 것을 강조하는데.

▷부산에서 활동하니 당연하다. 앞으로 부산이 커피도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꿈이다. 모모스커피가 커지고, 부산이 커져야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이 커지고, 한국이 커져야 우리도 성장한다.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덩치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

—바리스타는 소위 안정된 직장은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과 연락을 안 했다. ‘왜 그런 걸 해?’ 이런 시선이 있었다. 그럴 때면 ‘내가 너희들보다 잘될 거야’라는 생각도 했다.

—승부욕이 있는 편인가.

▷쓸데없는 승부욕이 있었다. 전교 1등, 이런 거를 하겠다는 승부욕이 아니라 작은 그룹에서 1등을 하겠다는 승부욕이 더 강했다.

—올해 준비하면서 작년과 가장 달랐던 점은.

▷작년에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생각했지만 올해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친구들 만나고, 술도 마시고, 잠도 충분히 잤다. 대회 준비를 하고 싶은 날은 하고, 하기 싫은 날은 안 했다. 신기하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She is...

1987년 창녕에서 태어나 김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일외고와 동서대를 다니다 2007년 처음 아르바이트로 바리스타를 시작하면서 커피와 인연을 맺었다. 2009년 모모스커피 소속으로 바리스타 생활을 시작했고 2018년 처음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다. 그해에는 14위에 머물렀지만 1년 만에 다시 국가대표에 선발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월드 바리스타챔피언이 되었다.

[이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